남구, 광주 유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호평

질병관리청 주관 성과 평가…복지부장관 표창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과학적 분석 관리 탁월

광주 남구가 질병관리청 주관 2022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대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인 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30곳으로, 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20곳은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거머쥐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남구가 유일하다.

남구는 올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과학적 접근 차원에서 국민건강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통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맞는 사업 방안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건강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남구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집중 관리 차원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19차례 진행해 관내 주민 3천134명의 건강을 관리했으며, 관내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1만7천513명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 자가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에 힘써왔다.

또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민 871명에 대한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심뇌혈관 고위험군 주민에 대한 정밀 검사 지원으로 합병증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홈페이지, 영상 송출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다.

남구 관계자는 "심뇌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맞춤형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산수2동, 꿈을 이뤄주는 '소원우체통'

취약계층 아동 10명에 선물 전달

광주 동구 산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숙)는 최근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원우체통'에 접수된 꿈을 이뤄주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꿈을 담은 소원우체통'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원 편지를 받아 해당 선물을 직접 전달해 주는 산수2동만의 특화사업이다.

올해는 10명의 아동에게 중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가방, 운동화 등을 비롯해 야구 배팅 티볼 세트 등을 전달했다.

이창훈 산수2동장은 "소원우체통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배워요" 광주 서구는 지난 1일 청사 들불홀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가슴압박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 서구 제공〉

서구, 전시·박람회 참가 희망 중소기업 지원

광주 서구가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및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을 지원한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광주 서구에 소재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다. 소상공인과 유통업체, 기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구청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지원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서구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h15@korea.kr)로 오는 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전시·박람회 참가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참가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전시·박람회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062-350-4864)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영기자

북구, 서방천 배수구역 하수도정비 공모사업 선정

국·시비 158억 확보…침수피해 예방 탄력

광주 북구는 4일 "환경부 주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서방천 배수구역'이 선정돼 국·시비 1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은 환경부가 전국 27개 지자체 58개 지역에 대해 지정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침수 피해 발생 정도와 하수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38곳을 최종 선정했다.

북구는 사업선정을 위해 광주시와 공동 대응한 결과 중흥동, 신안동, 문흥동 일대의 서방천 배수구역이 선정됐다.

해당지역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도로, 주택, 상가 등 다수의 침수피해를 입었던 구역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시 언제든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북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흥동, 신안동, 문흥동 일대 총 0.59㎢를 대상으로 빗물펌프장 설치 1개소, 방류관로 1.0㎞ 등을 설치해 2023년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한다.

이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중인 문흥동 성당 및 북구청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해 서방천 배수구역 침수피해 예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행안부 우수저류시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신안교 일원 대상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동구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수상작 5편 최종 선정…인쇄의 거리 활성화 적극 활용

광주 동구는 4일 "지난 2일 서남동 인쇄 테마 및 문화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공모전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인쇄의 거리 정체성 확립과 매력적인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동구는 접수된 작품 중 실현 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INK & LINK) ▲우수상 2편('자연과 사람을 엮는 인쇄거리', 'H'our Home:그때 그 시절 그 집') ▲장려상 2편('Street Museum Of Print', '활자를 담아 활짝 웃는 거리') 등 총 5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인쇄의 거리 공간 연결성이 돋보이는 가로 환경 디자인 ▲종이가 엮이는 행위를 형상화한 입면 디자인 ▲방문객에게 시각적으로 시간의 향유를 경험할 수 있는 체류 공간 조성 ▲비행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완성도 높고 참신함이 돋보이는 수작들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수상작은 테마 및 가로환경 디자인, 관광 거점 조성에 의견을 반영해 인쇄의 거리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광산구, 광주 양성평등정책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자치구 양성평등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참여 촉진, 여성 안전과 인권향상, 일·생활 사회 기반 조성 부문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광산구는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2060 광산젠더스쿨'을 비롯해 '광산형 마을돌봄체계 구축', 평등육아를 위한 '아빠육아 사진 공모전&전시회' 개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해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릴레이 폭력예방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등 여성 안전과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의 동참을 호소한 노력도 인정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차별과 인권침해 없는 광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옥근기자

CMYK